



지난 18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최종전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한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제공

시즌 목표 ‘5승 달성’ 성과 V리그 최다 17연패 불명예

페퍼저축은행 22-23시즌 결산

승부처 뒷심 부족 시즌 초 고전
신인 지명권 소진 오지영 영입
이고은 안정 속에 분위기 반등
FA시장 주전급 선수 영입 과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5승31패(승점 14)로 도드람 2022-2023 V리그를 마무리했다. 창단 첫해 3승28패(승점 11)를 했던 페퍼저축은행은 2년차에 2승을 더 보태며 목표했던 5승을 채우는 성과를 냈다. 시즌 초반 V리그 역대 최다인 17연패에 빠지면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사령탑 사퇴, 신인 지명권을 투자한 트레이드 등을 통해 전열을 정비하며 6개월의 대장정을 마쳤다. 사실 시즌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거나 수술 후 재활 중인 선수들이 예상보다 많아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1~2라운드 전패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더 험난했다. 특히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4세트까지 몰고 가면서도 늘 중요한 승부처에서 뒷심이

부족하거나 실책성 플레이를 펼치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경기가 많았다.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자 지난해 초대 사령탑인 김형실 감독이 자진사퇴 후 이경수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지휘봉을 잡았으나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후 1~2라운드 전패를 기록하면서 V리그 최다인 17연패 수렁에 빠지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연패를 끊어야 하는 절대과제를 안았던 페퍼저축은행은 신인 지명권을 소진하면서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고 이 트레이드는 적중했다. 특히 오지영의 결적적인 디그로 세트 이고은의 토스까지 향상됐다. 이고은과 외국인선수 니아리드의 호흡도 이때부터 제대로 맞기 시작했다. 수비와 리시브 라인을 보강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도로공사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지난 1월 23일 GS칼텍스를 상대로 홈 첫 승을 거두며 V리그 여자부 순위싸움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후 3월 10일에는 흥국생명과의 선두경쟁이 한창인 현대건설의 발목을 잡았고, 지난 달 18일에는 선수단 전원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3위 굳히기에 나선 갈길 바쁜 한국

도로공사를 무너뜨렸다. 후반기 여자부 순위 경쟁의 판도를 뒤흔들며 ‘매운 후춧가루’ 역할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매 경기 쉽게 세트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 범실도 646개(6위)로 현저히 줄었다. 물론 완벽한 전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부상선수로 인해 교체할 선수가 적었다. 이에 기존 선수들이 폴 세트를 뛰다 보니 체력적인 한계도 드러났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한비, 최가은, 박경현, 서채원 등 젊은선수들의 꾸준한 성장세는 내년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주장 이한비는 생애 첫 성인 국가대표팀에 승선해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다. 신생팀 2년차를 마무리한 페퍼저축은행은 3년차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아현 김 감독의 지도력에 기대하기 앞서 비시즌동안 두터운 스쿼드를 갖춰야 한다. 신인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에 FA시장에서 주전급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FA로 풀리는 이한비와 오지영을 잡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니아리드의 퇴출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영입해야 한다. 아현 김 신임 감독이 바쁜 비시즌을 보내게 됐다. /조혜원 기자

제41회 회장기레슬링대회 전남, 금 6·은 3·동 11개

전남 선수들이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저력을 과시했다. 20일 전남레슬링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개최된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이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 전남체육중·고에서만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8개가 나왔다. 전남체고는 총 금1, 은1, 동 4개를 획득했다. 전남체고 김국진은 자유형 97kg급에 출전해 우수한 경기력을 펼치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같은학교 후배인 허현찬(전남체고)을 만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허현찬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승현(그레고로만형 55kg급)은 준결승전에서 이노현(인천체고)을 만나 폴패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레고로만형 67kg급에 출전한 정승원은 준결승에서 권태영(전북체고)을 만나 테크니컬 패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윤수(자유형70kg급)와 김태빈(자유형125kg)은 각각 준결승에서 판



전남 선수들이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정패하며 동메달을 기록했다. 전남체중 활약도 빛났다. 전남체중 이다훈(그레고로만형 80kg급)과 채진호(그레고로만형 60kg급), 김예찬(그레고로만형 65kg급·자유형65kg급), 박태운(자유형92kg급)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김건(그레고로만형 42kg급), 이은수(그레고로만형 55kg급), 이현군(자유형 48kg급), 채진호(자유형 60kg급)가 동메달을 추가, 전남체중은 금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함평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함평중 정현우(그레고로만형 51kg급), 나준우(그레고로 92kg급)가 동메달, 함평하리고 나중혁(그레고로만형 130kg급)이 은메달, 함평군레슬링협회 김가빈(그레고로만형 63kg급), 나명길(그레고로만형 72kg)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형민 전남체육중·고 교장은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코치 선생님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지도, 힘든 훈련을 묵묵히 이겨내고 잘따라준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의 딸 안세영, 전영오픈 여자단식 정상

천적 중국 천위페이 2-1 우승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만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21·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2023 전영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선수로는 지난 1996년 방수현 이후 무려 27년만의 우승 쾌거다. 안세영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천위페이(25·중국)를 2-1(21-17 10-21 21-19)로 꺾고 우승했다. 지난해 결승에서 야마구치(일본)에 패해 준우승을 했던 안세영은 올해 ‘천적’ 이던 천위페이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전영오픈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전남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타이쯔잉(대만)을 2-1(17-21 21-19 24-22)로 꺾은 안세영은 결승이 최대 고비였다. 안세영은 세계랭킹 2위, 상대인 천위페이는 4위다. 순위보다는 상대 전적에서 안세영이 2승8패로 열세였다. 지난 2020년 첫 전영오픈에서 32강 탈락의 아픔을 맛보게 했던 상대이기도 했고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도 첫 경기 탈락을 하게 했던 천위페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 준



19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3전영오픈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결승에서 천위페이를 꺾은 안세영은 이날도 허를 찌르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천위페이를 넘어섰다. 1세트를 21-17로 제압한 안세영은 2세트를 10-21로 천위페이에게 내주고 마지막 3세트에서 승부를 걸어 승리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승이 믿기지 않는다. 멋진 체육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여자복식에서는 김소영-공희영이 이소희-백하나를 2-0(21-5 21-12)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혼합복식에서는 서승재-채유정이 중국 정쓰웨이-황야충조에 1-2(16-21 21-16 12-21)로 지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전남도청 최세빈, 펜싱월드컵 단체전 우승

결승서 이탈리아 45-42 제압

전남도청 최세빈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세빈, 전은혜(인천 중구청), 이한아(한국체대), 윤소연(대전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신트니클라스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대표팀(세계 2위)은 16강전에서 카자흐스탄(세계 16위)에 45-37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강팀 불가리아(세계 9위)를 만나 45-39로 승리했고 준결승전(4강)에서는 ‘난적’ 헝가리(세계 3위)를 만나 45-44로 힘겹게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펜싱강호’ 이탈리아(세계 4위)를 만난 대표팀은 45-42로 승리하며 짜릿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알제리 알제 월드컵 3위,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왼쪽부터 전은혜, 이한아, 윤소연, 최세빈./전남도체육회 제공

드컵 3위, 이달 초 그리스 아테네 월드컵 2위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 단체전에서 4개 대회 연속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을 대표팀 총감독(전남도청 감독)은 “국제대회에서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면서 “열심히 훈련해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KIA 앤더슨 5⅓이닝 1실점 ‘쾌투’

투구수 67개 직구 151km

김종국 감독 “안정적 피칭”

소크라테스 결승타 3-1 승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앤더슨이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효율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앤더슨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23 KBO리그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 5⅓이닝 동안 2타자를 상대로 3피안타 3사사구 1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LG 타선을 상대한 총 투구수는 67개. 시범경기 첫 등판이었던 지난 15일 3⅓이닝 동안 60개의 공을 던지며 제구에서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던 키움전과는 대조되는 효율적인 피칭이었다. 이날 앤더슨은 직구(45개), 커브(7개), 슬라이더(9개), 체인지업(5개), 투심(2개) 등을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였다. 1회초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정리한 앤더슨은 2회초 1사후 LG 문보경과 박동원에게 볼넷과 안타를 허용하며 1사 1,3루 위기를 맞았다. 이어 서건창 땅볼 때 3루 주자 문보경의 폭투로 실점한 앤더슨은 후속타자 김민성을 유격수 플라이 아웃 처리하며 추가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3회초에는 선두타자 홍창기에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허용했으나 후속타를 모두 처리했고 4회 2사후 박동원에 안타를 허용한 뒤 후속 타자 서건창을 뜬공 처리했다. 5회 1사 상황에서는 상대 홍창기에게 안타를 내주고도 박태민과 문성주를 범타 처리했다. 6회초 1사 상황에서 오지환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이준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김종국 KIA 감독은 “앤더슨이 투구수 관리를 잘 하면서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줬다. 지난 등판 때는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제구가 다소 흔들린 부분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 등판 때는 좀 더 투구수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직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원하는 대로 제구가 잘 됐다. 특히 유리한 카운트에서 결정구로 직구를 던져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앤더슨은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 곧바로 불펜에서 22개의 공을 추가로 던졌다. 앤더슨은 “정명원 코치와 소통하면서 정규 시즌 최상의 컨디션으로 등판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다음 등판에서 투구수를 더 늘리고 몸 상태를 잘 유지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KIA는 앤더슨의 호투와 소크라테스의 결승타를 앞세워 LG에 3-1로 승리했다. /조혜원 기자